

국어 오직 시험의 감을 위한, 수능 Item!

시험의 법칙

최영수 지음

Rule



지문을 읽기 전에, 정답의 감(感)을 찾는 7가지 법칙



2014 수능, Rule7의 쾌거!

2014년 수능 A형

- 1번: 대립 선지의 법칙
- 2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3쪽)
- 6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4쪽)
- 7번: 선지 오류의 법칙 (045쪽)
- 8번: 보기-선지의 법칙
- 18번: 대립 선지의 법칙 (180쪽)
- 19번: 선(先) 꼬리의 법칙 (131쪽)
- 23번: 보기-선지의 법칙 (093쪽)
- 24번: 대립 선지의 법칙
- 25번: 선(先) 꼬리의 법칙 (125쪽)
- 27번: 대립 선지의 법칙 (177쪽)
- 29번: 선(先) 꼬리의 법칙 (131쪽)
- 31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4쪽)
- 33번: 일탈 선지의 법칙 (149쪽)
- 38번: 공통 선지의 법칙 (209쪽)
- 39번: 일탈 선지의 법칙
- 42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4쪽)
- 45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2쪽)

2014년 수능 B형

- 3번: 대립 선지의 법칙 (173쪽)
- 17번: 선(先) 꼬리의 법칙
- 18번: 선(先) 꼬리의 법칙
- 22번: 대립 선지의 법칙
- 23번: 선(先) 꼬리의 법칙 (125쪽)
- 25번: 대립 선지의 법칙 (177쪽)
- 28번: 선(先) 꼬리의 법칙 (116쪽)
- 29번: 대립 선지의 법칙
- 30번: 대립 선지의 법칙
- 32번: 대립 선지의 법칙 (177쪽)
- 33번: 대립 선지의 법칙
- 35번: 공통 선지의 법칙 (207쪽)
- 36번: 공통 선지의 법칙 (208쪽)
- 38번: 공통 선지의 법칙 (209쪽)
- 39번: 일탈 선지의 법칙
- 41번: 선(先) 꼬리의 법칙
- 42번: 대립 선지의 법칙
- 45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2쪽)



시험의 법칙이 한 시험에 5문제 정도만 활용되어도 굉장히 유용한데 2014년 수능에는 약 20문제에 활용되었습니다. 이 책이 정식 출판되기 전에 미리 만나본 수험생은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분량 때문에 책에 넣지 못한 문제의 분석은 rule7 카페
<http://cafe.naver.com/rule7> 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Rule track

I. 발문-선지의 유형	009
II. 선지 오류의 유형	039
III. 보기-선지의 유형	063
IV. 선(先) 꼬리 유형	095
V. 일탈 선지의 유형	137
VI. 대립 선지의 유형	161
VII. 공통 선지의 유형	189
정답 및 해설	217

정답과 해설

I. 발문-선지의 유형	220
II. 선지 오류의 유형	254
III. 보기-선지의 유형	282
IV. 선(先) 꼬리 유형	312
V. 일탈 선지의 유형	350
VI. 대립 선지의 유형	382
VII. 공통 선지의 유형	422

칼럼

8번 문제의 기막힌 우연	037
과학적 근거의 짚기	061
국어의 사주팔자	094
문제집의 불편한 진실	136
기본은 흔들리지 않는다	159
4800초의 시간 컨트롤	187
2014년 수능 시험의 법칙 적용 쾌거!	215



Rule 7 Message!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책도 그 책만으로 여러분의 국어 점수를 올려줄 수 없습니다. 국어 점수는 언어적 감, 국어 지식, 풀이 노하우 등 다양한 학습이 고등 사고를 거쳐 나오는 종합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교재에 Plus Item 교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본 교재에 제시된 국어 시험의 7가지 법칙은 어쩌면 국어 학습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것들입니다. 지문을 읽기 전에 느끼는 무의식적인 문제 풀이의 감을 학습의 테마로 했으며 지문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풀이 방법 및 기술서류의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각 문제의 지문은 생략하고 해설 편에 별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문 없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3일 만에 책을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에서 소개되는 7가지의 법칙이 수학 공식처럼 100%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도로 주관적인 국어 과목에 높은 확률의 규칙성을 이론화·유형화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며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는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지만 수능(80%)을 중심으로 중3, 고 1~2 성취도 평가 및 국어교사 선발문제까지 확대하여 폭 넓은 시기(1994~2014)의 기출 문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국어 시험의 법칙이 특정시기, 특정시험에 한정되지 않고 나타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장에서 자신의 국어 지식을 100% 쏟아 낼 시험의 감 혹은 문제 풀이의 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부족한 감(感)을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message continue

<http://cafe.naver.com/rule7>

Rule 7 사용방법 & 주의사항

1. 각 Rule의 안내문제를 먼저 읽고 해당 연습문제를 풀어봅니다.
2. 연습문제는 A, B, C 세 단계로, 한 단계를 풀고 반드시 해설 확인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연습문제의 지문은 분량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해설에 별도 탑재했습니다.
4. 연습문제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고민하여 풀어야 시험의 감(感)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수능 시간을 고려하여 문제를 푸는 것은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풀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5. 연습문제 채점 후 틀린 개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해설을 통해 문제 풀이의 감을 충분히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6. 교재에 소개된 시험의 법칙, 시험의 원리, 출제 지침 등은 국어의 감각과 문제 풀이의 시야를 넓혀주는 도구이니 이들은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어에는 주관적인 학문 특성상 객관적인 수학처럼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절대 불변의 공식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7. 본 교재의 학습 목적이 여러분의 평소 국어 학습에 시험의 감(感)과 문제풀이의 넓은 안목을 더해 실전 시험에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Rule 7 event!

하나, 교재 학습 후 친구에게 추천할 경우 (카페에 구매자, 추천인 ID 등록)
둘, 교재 학습 후 후기를 작성할 경우
셋, 교재의 오류를 신고할 경우 (오타, 정답오류, 해설오류 등)



참여 수험생 모두에게 문화 상품권(만원 상당)을 증정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Rule 7 카페에서 상세 안내

▶ <http://cafe.naver.com/rule7> (자료 업데이트, Q & A, 국어 전문 칼럼)



시험의 법칙



Rule 1

[발문-선지] 유형

출제 빈도 : ★★☆☆

정답 접근성 : ★★★★★

국어 시험에서 지문을 읽지 않고 【발문-선지】만으로 문제가 풀리기도 한다. 이를 유형화하여 학습하면 문제 풀이의 감(感)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의 제작 원리와 출제자의 심리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Q 다음 글에 나타난 ‘영수의 성격’으로 적절한 것은?

– 지문 생략 –

- ① 낮을 잘 가린다. ② 가족이 많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키가 매우 크다. ⑤ 성적이 점점 떨어진다.

지문 없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국어 시험은 모든 과목 중에서 지문이 가장 많고 길다. 그만큼 지문을 의지하여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한다. 책의 첫 문제부터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 문제 풀이를 하다가 간혹 지문 없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문을 생략한 문제는 처음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위 문제는 10초 안에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

먼저 출제자가 묻는 말인 **발문**부터 보자. **발문**이라는 것은 해당 지식을 알고 있는 자(출제자)가 모르는 자(수험생)에게 묻는 말로, 모르는 자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과는 다르다.

Q 다음 글에 나타난 ‘영수의 성격’으로 적절한 것은?

발문의 핵심정보인 ‘영수의 성격’과 관련성 있는 선지(선택지의 줄임말)를 살펴보자.

① 낮을 잘 가린다.	⇒ 사람의 성격에 해당
② 가족이 많다.	⇒ 사람의 성격이 아님
③ 건강한 편이다.	
④ 키가 매우 크다.	
⑤ 성적이 점점 떨어진다.	

선지 ①만이 사람의 성격으로 발문의 핵심정보인 ‘영수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나머지는 그 사람의 내·외적 상황이지 **사람의 성격**을 직접 나타내는 말은 안 된다. ②~⑤는 발문

핵심의 최소 정보인 '성격'에도 해당되지 않아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지문을 확인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①이 답이 된다.

위 문제가 정상적인 형태가 되려면 '성격'을 나타내는 선지가 최소 하나 더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둘 중 어느 것이 지문에 나와 있는 영수의 성격인지 선택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해 지문 없이 발문과 선지만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1 번째 시험의 법칙인 **【발문-선지】의 법칙**이다.

1. 발문-선지의 법칙

- 1) 발문에서 정답의 조건을 분석한다.
- 2) 발문의 조건을 만족하는 선지를 확인한다.
- ▶ 발문의 조건을 만족하는 선지가 1개이면 그것이 정답일 확률은 100%이다.

국어 시험을 보면서 위와 같은 문제 유형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문제 풀이 감이 좋아서? V S 문제 자체가 엉성해서?

엉성한 문제라면 위 경우는 저자가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수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어 시험에서 지문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었다.

01

안내 문제

윗글을 읽고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 학습을 하고자 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005 6월 평가원 |

- ① 자격루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어떻게 보정했을까?
- ② 자격루는 언제까지 국가의 표준 시계로 사용되었을까?
- ③ 일반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 주는 방법은 무엇이였을까?
- ④ 조선 시대의 왕은 왜 그렇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고 했을까?
- ⑤ 만 원짜리 지폐에 자격루 그림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 시험의 원리 I

항상 발문을 먼저 보자

수능 국어영역은 [지문 + (보기) + 발문 +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수험생이 먼저 봐야 할 것은 [발문 ⇒ (보기) ⇒ 선택지 ⇒ 지문]인데, 발문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는 읽어야 하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문을 가장 먼저 봐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평소 문제풀이에서 접했던 발문 유형을 수능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문제풀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발문 유형에 따라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거나 긴 지문 속에서 정답의 단서가 될 위치를 빠르게 선택하기 위해서이다.

위 문제는 지문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기에 지문을 아예 생략했다. 위 문제의 발문을 분석해 출제자는 수험생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살펴보자.

발문 분석	답의 조건
A 윗글을 읽고	⇒ 지문(윗글)과 관련성을 지녀야 함
B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 '자격루의 원리'와 관련성을 지녀야 함
C 심화 학습을 하고자 할 때	⇒ 심화(정도가 깊은) 학습과 관련성을 지녀야 함
D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 질문형태 혹은 그런 의도의 내용이어야 함
E 가장 적절한 것은?	⇒ 상대적으로 최선 부합(적절)형 이어야 함

그리 길지 않은 발문이지만 정답이 되기 위해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일단 A는 지문이 없으니 통과. 다음 B, 각 선택지가 '자격루의 원리'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① 자격루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어떻게 보정~	⇒ 자격루 원리와 관련 (정답)
② 자격루는 언제까지 국가의 표준 시계로 사용~	⇒ 자격루 표준 시계의 사용 시기 관련
③ 일반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 주는 방법은 무엇~	⇒ 자격루 원리와 직접 관련 ×
④ 조선 시대의 왕은 왜 그렇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	
⑤ 만 원짜리 지폐에 자격루 그림이 들어간 이유~	

‘자격루의 원리’에서 ‘원리’(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의 의미가 선지 ①의 자격루 오차 보정(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함)과 관련이 있다. 즉,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하는 데(보정)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원리)가 필요한 것이다. ②는 자격루 표준 시계의 사용 시기와 관련된 것이며, 나머지 ③~⑤는 ‘자격의 원리’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

정답은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B 자격루 원리)도 만족하지 못하는 선지 ②~⑤는 당연히 정답에서 제외되며 ①만이 답이 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문은 물론 발문의 나머지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만약 ①이 다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답이 없는 문제가 된다. 생략된 지문을 확인한 실제 답도 ①이며 발문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도입 문제와 같은 **【발문-선지】의 법칙** 유형으로 발문과 선지만으로 답을 100%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 시험의 원리 II

언어적 직감이 중요하다

위 문제는 발문 핵심어인 ‘원리’의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몰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왜냐 하면, ‘원리’가 다섯 선지의 핵심 낱말 중에서 ‘보정’과 가장 관련된다는 것을 언어적 직감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적 직감은 지문을 읽고 풀리는 출제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쉽고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게 해 준다.

출제자의 의도인가? V S 출제자의 실수인가?

1) 명백한 실수이다

위 문제는 결국 자격루의 원리와 관련된 것을 고르시오. 라는 단순한 문제가 되었다. 출제자가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학습 질문을 요구했다면, ‘자격루의 원리’와 관련된 선지가 2개 이상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이 심화 학습, 기본 학습으로 선지를 구성해야 모범적인 된 문제가 된다.

- ① 윗글과 관련 있는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기본학습** 질문유형 → 오답 (매력 :★★☆)
- ② 윗글과 관련 있는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학습** 질문유형 → 정답

2) 실수가 아닌 의도된 것이다

수능을 포함한 모든 과목의 객관식 시험에는 권고하는 출제 지침이 있다. 출제자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17 객관식 출제 지침 中

“한 문제의 발문에서 묻는 바는 한 가지로 하고
두 가지를 묻는 경우에는 두 문제로 출제할 것을 권함”

이는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단일화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르면 위 문제의 의도는 발문 내용(자격루의 원리) 중 낱말(원리)의 뜻을 선지에 적용하는 것만을 평가하는 것이다. 지문은 단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

두 의견 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출제자는 의도적으로 출제 지침을 어겨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매력 오답을 구성해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린다.

〈 모범적인 매력 오답의 구성 모형 〉

정답: ⑤ 윗글과 관련 있는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학습 질문유형	
① 윗글과 관련 있는 자격루의 형태에 대한 기본학습 질문유형	⇒ 오답 (매력: ★☆☆)
② 윗글과 관련 없는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학습 질문유형	⇒ 오답 (매력: ★★★)
③ 윗글과 관련 있는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기본학습 질문유형	⇒ 오답 (매력: ★★☆)
④ 윗글과 관련 있는 자격루의 형태에 대한 심화학습 질문유형	⇒ 오답 (매력: ★★☆☆)

생략된 지문을 통해 정답의 근거를 확인해 보자.

지문 & 해설

(가) 1434년 7월 1일, 조선 왕조는 자격루(自擊漏)라고 불리는 자동 물시계를 국가의 새로운 표준 시계로 채택했다. 세종의 명을 받은 장영실은 더 정확한 물시계를 만들기 위해 시각을 측정하는 잣대의 길이를 4배가량 키워 눈금을 세밀하게 새겨 넣고, 물받이 통을 비울 때도 연속적으로 시간을 잴 수 있게 통을 2개로 늘렸다. 여기에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 주는 장치를 더하여 자격루를 완성하였다.

(나) 자격루는 시각을 측정하는 물시계, 물시계에서 측정된 시간을 소리로 바꿔 주는 시보 장치, 물시계와 시보 장치를 연결해 주는 방목(方木)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만 원짜리 지폐에서 볼 수 있는 물시계 부분은, 물을 공급하는 항아리인 파수호에서 물을 흘려보내면 물받이 통인 수수호에 물이 고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수호에 띄워 놓은 잣대가 고인 물의 부력에 의해 떠오르면 잣대에 새긴 눈금을 읽어 시각을 알아낸다. 따라서 **물시계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수수호를 튼튼하게 제작하여 물이 가득 찼을 때 받는 수압에도 변형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다. 실제 자격루의 수수호는 지금까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가), (나)에 선지 ①의 '자격루의 오차를 보정'하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자격루의 원리를 활용한 방법으로 자격루의 원리에 대한 심화학습의 근거가 된다.

02

안내 문제

다음 글의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하는 것은?

| 2012 수능 |

- ① 곰팡이는 생물의 일종이다.
- ② 물은 1기압에서 90℃에 끓는다.
- ③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 ④ 우리 반 학생의 절반 이상이 헌혈을 했다.
- ⑤ 선생님은 한평생 바람직한 삶을 살아왔다.

문제풀이 시 시선 1순위는 발문

발문이 그만큼 중요하다. 위 문제의 발문은 참 깔끔하다. 답도 깔끔하게 구해질까? 발문의 핵심정보에 대한 배경지식만 조금 있다면 가능하다. 일단 발문을 다시 살펴보자.

Q 다음 글의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하는 것은?

발문 핵심어인 '명제'의 간단한 개념만 알아도 답이 바로 보인다. 명제란? 참 혹은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선지 ⑤는 명제가 될 수 없다.

⑤ 선생님은 한평생 바람직한 삶을 살아왔다. ⇒ 명제 ×

사람의 주관적 생각인 선지 ⑤의 바람직한 삶은 참 혹은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명제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 ①~④는 객관적 현상 혹은 사실로서 참, 거짓의 판단이 가능하기에 '명제'이다.

명제는 명제인데 '의미 없는 명제'의 의미는 지문을 읽어야 정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의미 없는'이라는 부정적 수식어 때문에 명제가 성립되지 않는 문장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명제가 아닌 선지 ⑤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생략된 지문을 통한 실제 정답도 ⑤이다.

생략된 지문을 통해서 '의미 없는 명제'의 의미를 확인해 보자.

지문 & 해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 지문에 '의미 있는 명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나타나 있다. 선지 ①~④는 일반적인 명제이지만 ⑤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없어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한다. ⑤가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는 이유는 선생님의 삶이 바람직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03 다음은 (다)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이다. 작품 자체의 내적 의미만을 주목한 것은?

안내 문제

| 2001 수능 |

- ① 종환 :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쓴 작품이래. 그런데 농촌이 수탈된 마당에 술 먹는 마을이 어디 있었겠어?
- ② 민희 : 그건 조금 지나친 지적 같아. 그 당시 시인은 아마 생활이 어려웠을 거야. 나그네처럼 먼 길을 힘들게 걷다가 노을을 찾아오고, 술도 한잔 하고 싶고, 그 허무한 마음을 표현한 것 아닐까?
- ③ 인규 : 술과 노을이라……. 그거 이미지가 썩 잘 어울리는데. 밀밭 길이 주는 느낌과도 통하면서.

시험의 법칙



Rule 2

[선지 오류] 유형

출제 빈도 : ★★☆☆

정답 접근성 : ★★☆☆

국어 시험에서 선지 자체가 국어 혹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잘못된 경우가 있다. 이때 문제가 부정형 발문일 경우 잘못된 선지가 답일 가능성은 거의 100%이다. 이를 유형화하여 학습하면 문제 풀이의 감(感)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의 제작 원리와 출제자의 심리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Q 다음 글에 나타난 (생략)?

— 지문 생략 —

- ① 수업 직전에 예습하는 습관을 갖는다.
- ② 집중이 잘 안 되면 잠시 쉬었다 공부하는 것이 좋다.
- ③ 항상 뚜렷한 목표를 생각하면서 공부한다.
- ④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공부한다.
- ⑤ 한 과목보단 두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발문의 일부도 생략

지문은 물론 첫 번째 시험의 법칙인 **【발문-선지】**에서 강조한 발문의 핵심정보마저 없다. 정답은커녕 정답으로 예상되는 것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발문이 긍정형인지 부정형인지 즉, 적절한 것을 원하는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원하지도 알 수 없다. 다행히 선지 내용은 온전하다. 일단 이것이라도 살펴보자.

① 수업 직전에 예습 하는 습관을 갖는다.	⇒ (상식적으로) 맞는 말
② 집중 이 잘 안 되면 잠시 쉬었다 공부하는 것이 좋다.	
③ 항상 뚜렷한 목표를 생각하면서 공부 한다.	
④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공부 한다.	
⑤ 한 과목보단 두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 비상식적

각 선지의 핵심어(예습, 집중, 공부)를 보니 위 지문은 ‘학습’을 제재로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혹시 이를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선지 ①~④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⑤는 비상식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문이나 발문의 내용이 무엇이든, 얼마나 있든, 심지어 없더라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선지의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생각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선지 ⑤, 한 과목만 집중해도 그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두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은 시도조차도 어렵고 집중을 방해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안다. 주변에 국어와 수학책을 각각 한 장씩 넘기며 공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답이 선지 ⑤로 예상되며 발문은 ‘효율적인 학습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어울린다. 다만 지문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⑤를 답으로 100%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능에서 부정형(적절치 않은) 발문에 선지가 일반상식을 벗어난다면 그것이 정답이 될 확률은 100%에 가깝다. 이것이 바로 국어 시험의 2번째 법칙인 【선지 오류】의 법칙이다.

II. 선지-오류의 법칙

- 1) 발문이 부정형임을 확인한다.
- 2) 선지를 배경지식과 일반상식으로 확인해본다.
 - ▶ 배경지식이나 일반상식으로 잘못된 선지는 100% 정답이다.

수능은 초·중·고 국어교육과정의 종결자격인 시험이다. 위와 같이 상식적으로 간단히 풀리는 문제가 과연 나올까?

01

안내 문제

〈보기〉의 그림을 보면서 ‘효과적인 독서’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재생’을 ‘독서’라고 가정하고 연상했을 때, ①~⑤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07 9월 평가원 |

- ① 빨리 감기 : 독서하면서 필요한 정보가 있는 곳을 찾아가려면 건너뛰며 읽을 수도 있다.
- ② 되감기 : 다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부분으로 돌아가 다시 읽기도 한다.
- ③ 정지 : 독서를 하다가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만둘 수도 있다.
- ④ 일시 정지 : 독서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읽기를 잠시 멈출 수도 있다.
- ⑤ 녹음 : 독서를 할 때에는 음악을 함께 듣는 것이 좋다.

앞선 도입문제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비록 모의수능이지만 위와 같이 간단히 풀리는 문제가 이미 출제되었다. 상식적으로 선지 ⑤가 적절하지 않다.

⑤ 녹음 : 독서를 할 때에는 음악을 함께 듣는 것이 좋다. ⇒ 비상식적

이유는, 뇌가 두 가지 활동(독서+음악듣기)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 한 가지 활동(독서)

을 하는 것이 더 집중도 잘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혹시 ‘나는 음악을 들을 때 독서가 더 잘되던데’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는 책만 보기에 집중이 안 돼서 음악이 필요한 것이다. 집중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독서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선지 오류】의 법칙 문제는 선지 자체의 오류도 답의 근거가 된다!

【선지 오류】의 법칙에 관련된 출제 지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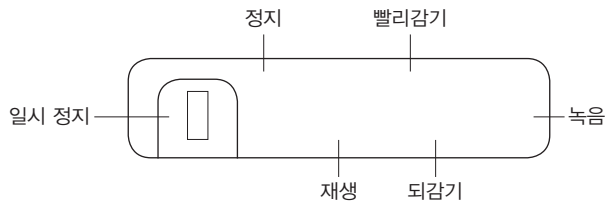
17 객관식 출제 지침 中

“지문 혹은 발문과 상관없는 선지 자체의 내용 오류로 인해 정답의 단서가 되지 않게 주의한다.”

출제자는 지침을 준수하며 지문을 통한 수험생의 능력 평가를 의도하였으면 최소한 선지 자체의 내용을 오류 없이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오류가 수능을 포함한 여러 국어 시험에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수험생은 이를 적극적으로 인지하여 문제 풀이의 감(感)을 극대화해야 한다.

생략된 그림 자료와 함께 정답을 다시 확인해 보자.

지문 & 해설



➡ 그림은 음악 재생 컨트롤 메뉴로 독서하기를 음악 듣기로 비유한 것이다. 음악 감상 중 선지 ①의 빨리 감기는 독서에서 읽지 않은 다음 부분을 미리 보는 것으로, ②의 되감기 기능은 독서에서 읽은 부분을 다시 보는 것으로 비유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악이 아니면 ③처럼 음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잠시 가사를 생각해 보거나 메모를 한다든지 하여 음악을 ④처럼 일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이어서 들을 수 있다. 이는 독서를 아예 그만두거나 잠시 멈추는 것으로 비유된다. 하지만 ⑤의 녹음은 음악 듣기가 아니다. 이는 외부의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저장하는 것이므로, 독서하면서 음악 듣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